

# 직업계고 현장실습시간 12주 연장 논란

### 도내 교육단체, 전북교육청에 “교육권 보호 기준 파기… 지침 개악 철회하라”

### 전북교육청 “교직원 등 의견 반영… 현장실습위 선정 선도기업에 한해 운영”

직업계고 현장실습 시간 12주 연장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북본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교노 전북교육청지부,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주참교육학부모회 등 관련 단체들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침 개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장실습위원회회를 열어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실습 기간은 최대 12주로 연장하고, 시기는 연중 시행으로 바꿨다. 이는 전북지역에서 2017년 이후 유지해 온 최소한의 교육권 보호 기준을 파기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교육적·사회적 합의를 저버린 행위이자, 비극적 사건을 망각한 결정이라며, 현장실습이 ‘학습’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 공급’으로 변질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북본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교노 전북교육청지부 등 도내 교육단체들이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침 개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교육청은 전교조와 합의해 2019년 단체협약에 ‘실습 기간은 최대 4주, 실습 시기는 3학년 11월 이후’로 한정하는 조항을 명시했다”며 “이 조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이 조항을 논하는 실무 교섭이 있었고 점점 조항으로 비류된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침 개정을 강행했다는 것. 이들은 “2024년 직업계고 졸업생 중 졸업 후 취업률 비율은 26.3%에 불과하고, 대학 진학률은 48.0%로 취업률보다 훨씬 높다”며 “학생들은 이미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습을 연중 시행할 경우 3학년 1학기부터 수업 결손이 발생하며, 이미 실습으로 무너진 2학기까지 포함하면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사실상 붕괴된다”며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 진학권, 진로 선택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현장 실습을 현행 4주에서 12주 이내로 변경한 것은 직업계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 지역과 타 지역 학생들이 동일한 기준에서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위원회에서 선정한 선도기업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며 “노무사 사전점검, 직무중심 프로그램 운영, 안전교육, 실습 중 모니터링과 점검, 종료 후 평가 등 다중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교육감 궤위… 전북교육 위기 극복하자”

### 박정희 도의원, “학생 중심에 둔 교육에 충실히 임해달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5일 제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감 궤위로 인한 전북 교육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도민·교육청·의회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6일 대법원 판결로 서거석 전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화되며, 전북교육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교육 수장의 공백은 학생 중심 미래교육 비전의 연속성에 큰 타격을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즉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교육행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각에서는 전북교육 전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감사 요구와 혼란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전 교육감의 선거 관련 사법 판단일 뿐, 지난 3년간의 교육행정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의회 또한 그간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견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교육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감사는 오히려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북교육의 안정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하며, 부교육감을 비롯한 전 북교육청 교직원 모두가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위기를 전북교육이 한층 더 단단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도의회도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각에서는 전북교육 전체를 부정하는 언을 마무리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연수원, 지방공무원

### 240여명 대상 미래교육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15일 교육연수원 연화관에서 지방공무원 24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 패러다임과 AI역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학교현장의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자 AI 기반 교육전문가인 전주교육대학교 정영식 교수를 초청했다.

정 교수는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도 변화하고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며 “교육혁신은 AI를 수단으로 사람 중심 교육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민완성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공무원들이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우수학교’ 11개교를 선정, 15일 봉서초등학교에서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우수학교’ 선정

### 전북교육청, 11개 학교 선정… 봉서초서 인증패 수여식 개최

### 우수사례 공유 등 통해 관계·회복 중심 학교문화 정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우수학교’ 11개교를 선정, 15일 봉서초등학교에서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우수학교’ 선정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모두가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올해 선정된 학교들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책임규약을 만들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 간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봉서초는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을 때’라는 주제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약속 활동을 전개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배려와 존중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향후에도 우수사례 공유회, 규약 실천 워크숍, 실천학교 견학 등 운영해 도내 모든 학교가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지우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약속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교육 그 자체”라며 “앞으로도 학생이 주도하고,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학교 감염병

### 예방·대응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전주 치명자산 평화의 전당에서 ‘2025년 학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담당교사의 실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

오전에는 학교 관리자 175명, 오후에는 감염병 담당교사 170명 등 총 345명이 연수에 참여했다. 특히 전북 지역 감염병 전문가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로 강사진을 구성,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이명옥 전북특별자치도청 감염병관리과장, 김지원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역학조사관, 강하나 전주 온빛중 교사가 강의를 맡았다.

주요 내용은 △전북지역 및 호남권 학교 감염병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제3차 개정판) 적용 방안 등이다.

강양원 문예재단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실천 중심의 연수과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총동창회, ‘후배 사랑’ 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 천원의 아침밥·유학생·대학원생·자립준비 청년까지 촘촘히 지원

### 대학원생 장학금도 신설… 대학 연구력·대학원 교육 질 향상 모색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가 ‘후배 사랑’ 장학금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6·25전쟁 참전·지원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금이다. 지난 6월 24일 열린 수여식에서 캐나다·에티오피아 출신 유학생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장학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돼 20명의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고려인 후손 장학금을 신설해 러시아 출신 유학생 1명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시작해 올해 예산을 3,000만원으로 확대해 3만명의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생 연구비 지원 장학금도 주목된다. 이 사업은 교수회와 함께 진행하는 장학사업으로, 대학원생

들의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대학원생 1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 원씩의 연구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자립준비청년(보육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8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의·치·약·수의대 학생들에게는 12학기에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최병선 총동창회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장학금과 아침밥이라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후배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1학교 1인성브랜드 실천 사례 확산

### 전북교육청, 상반기 교육과정 중심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1학교 1인성브랜드’ 실천 사례 공모를 통해 우수학교 12곳을 선정했다.

1학교 1인성브랜드 정책은 전북 인성교육 3대 핵심덕목과 연계한 학교별 특색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함양하고, 학교구성원들이 하나의 브랜드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1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성교육 신규 정책으로 1학교 1인성브랜드를 추진하면서 3월 초 도내 모든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757개교의 현황을 파악, 1학교 1인성브랜드 실천 사례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학교로는 △전주대정초등학교 △전주전일초등학교 △전주중앙중학교 △전주군영여자고등학교 △군산서흥중학교 △익산부천중학교 △남원광여자중학교 △남원도통초등학교 △한울학교 △동상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안중학교

등이다. 특히 전주군영여고는 학년·학급 테마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실천 활동을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고, 원광여중은 자체 제작한 나의 바른 성장 노트(귀공주)를 활용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특수학교인 한울학교는 인성교육 실천 결과로 나타난 변화 및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계획 등 개선 방안을 현실성 있게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편 우수학교 12개교에는 인성교육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며, 하반기 도내 모든 학교에 실천 사례 공모를 진행했다.

김지우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존중과 배려, 나눔, 다양성, 공동체성 등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학교의 철학과 특색이 담긴 인성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RISE 사업단, 에너지신산업 오픈캠퍼스 운영

전북대학교 RISE 사업단은 14~18일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전북시정연구소와 협력해 ‘에너지신산업 오픈캠퍼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신산업 오픈캠퍼스는 전북지역 및 에너지신산업혁신융합대학 소속 재학생 대상의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고려대, 한양대, 경남정보대, 부산대 등에서 35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교육은 에너지·전기안전 특강 △에너지신산업 직무 체험 △산업현장 견학 △전문가 멘토링 등으로 구성, 학생들의 전공역량 강화와 산업현장 이해도 제고에 중점을 뒀다. 특히 전북시정연구소와 공동 기획한 ‘전북지역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아



이디어 경진대회’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활용, 전력 안정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과 실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수 아이디어를 제시한 참가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RISE 센터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되며, 실질적인 지역정책 제안 기회도 주어진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수소에너지고 꿈 키움 기업탐방’ 진행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15일 LS엠트론에서 ‘꿈 키움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소에너지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이해하고,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기반한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LS엠트론의 사업 분야 및 제품 소개 △생산 및 연구 현장 라



인 투어 △직무 환경 체험 △취업 특강 및 직무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LS엠트론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인재상과 채용 절차, 주요 직무에 대한 특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했다. /장은성 기자